

차가운 겨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약속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2일,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JG(제이)그룹 지구커피 본사 앞 행사장에는 유난히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밖에서는 찬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실내는 이웃을 향한 온정으로 가득했다.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지회(지회장 정인스님)와 (사) 한국장애인교통신화협회, 전주역 앞 작은 법당 연꽃마을 자비원 무에서가 공동 개최하고 JG(제이)홀딩스 그룹 지구커피가 후원한 2026 설맞이 암환자 및 독거노인과 장애인 돕기 나눔 행사가 열리며 독거노인과 장애인 암 환자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JG(제이)홀딩스 그룹 지구커피가 행사비 전액을 후원해 쌀 100포대, 라면 100상자, 송이버섯 100장 차스코 침향 활력단 100상자, 신양외삼 뿌리 100상자, 허리 무릎 손목 보호대 100세트, 프로폴리스 차약 100개, 고급칫솔 4개들이 100세트, 천년초 100병 등 5천여 만원 상당을 포장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암 환자분들에게 고루 나누어 드렸다.

이번 나눔 행사의 중심에는 201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봉사를 이어온 정인 스님이 있다. 작은 후원에서 출발한 이 나눔은 15년의 세월을 지나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대의 상징이 됐다.

정인 스님은 인사말에서 “처음에는 혼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큰 감동이 되었다”며 깊은 감회를 전했다. 이어 “암 환자와 독거노인, 장애인분들은 경제적 어려움도 힘들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이 더 고달프다”며 “특히 이런 어려운 분들은 병원에 갈 때도, 명절을 맞을 때도 마음 기댈 곳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병원 연계, 긴급 의료 지원, 장례 지원까지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어려운 이들의 곁에 서 있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서의 책임 의식이 담겨 있었다.

이날 행사의 든든한 후원자는 JG 홀딩스 그룹 지구커피였다. 3년째 행사를 전액 후원하고 있는 이재구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쌀 포대와 라면 상자를 전달하며 직접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이 회장은 “기업의 성장은 사회와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며 “회사가 성장한 만큼 그 결실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공을 임직원들에게 돌렸다.

JG홀딩스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정착사업 복지기관 후원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회장은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기업 경



JG홀딩스 그룹 지구커피 후원 쌀 100포대·라면 100상자 등 5000여만원 상당 물품 전달 봉사자 대상 표창장 전달식도



영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숨쉬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후원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전북도지사 표창은 신경숙·이덕희·신혜경 씨가, 전주시장 표창은 김정연·안영숙·양지숙·정종일·이덕주 씨가, 완주군수 표창은 김용민·오재석 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정동영 국회의원 표창은 허하암·박선자·김부자·김문정·이덕희 씨가 수상했고, 이성운 국회의원 표창은 채성숙·임효정·김윤녀·정옥순·김희성 씨에게, 인호영 국회의원 표창은 김병호·김진욱·김진주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끝으로 전북도의회 의장상은 배



선용·김강연·김대환·김상진·김인욱·박종민·유영민·최성규 씨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겸손히 받겠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에 힘을 보탠 자원봉사자들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기념 촬영에서는 참석자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정인 스님의 당부는 행사장을 떠난 뒤에도 “혹시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단위에 연락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돕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날의 나눔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15년 동안 멈추지 않은 나눔의 시계바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정인 스님과 JG홀딩스 그룹 지구커피가 이어가는 나눔의 동행은 지역 사회에 작은 불빛을 밝히고 있으며, 그 불빛은 또 다른 이웃사랑을 전하는 나눔의 연대로 확산되고 있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약속은 그렇게 또 한 해를 이어가고 있다. /0만호기자

40년 동안 이타행의 삶 실천해 온 정인스님 “현재의 기쁨이 곧 천국,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지옥”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사무실. ‘상생과 나눔’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에서 우람한 체구의 한 노스님이 여러 봉사자들과 묵묵히 쌀 포대와 라면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허리를 깊이 굽힌 채 쌀 포대와 라면상자 등 생필품을 차에 싣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처럼 보였다.

올해로 40여 년째 산중의 절을 마다하고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이웃의 곁을 지키는 정인 스님이다.

산중 암자에서 홀로 깨달음을 구하는 대신,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길을 택한 수행자. 스님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했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정인 스님은 “절은 크게 세워 그 안에서 머무는 삶보다 세상 속에서 중생과 더불어 살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출가 당시부터 남다른 다짐을 했다고 한다.

그에게 수행은 고요한 산중의 좌선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일, 기니를 걱

정하는 어르신에게 쌀 한 포대를 전하는 일, 외로운 이웃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일 또한 수행이었다.

그 다짐은 4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스님의 나눔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1990년대부터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암 환자들을 도왔다. 많게는 30여 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그의 손길을 통해 새 삶을 얻었다. 지금도 몇몇 암 환자들이 스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의 뿌리는 스님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소년 가정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건넸던 작은 도움은 지금까지 평생 잊히지 않는 빛이 되었다.

특히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노년 세대에 대한 애정이 깊다.

“어려운 시절 나라를 지탱하신 분들이 정작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그 마음이 스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다.



정인 스님의 나눔은 일회성이 아니다. 2011년부터 설과 추석, 가정의 달마다 빠짐없이 대규모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100여 명이 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스님은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다. 기업인과 자영업자, 병원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탠다. 스님은 자신을 그저 ‘가교’라고 표현한다. 선한 마음이 흘러가도록 이어주는 역할일 뿐

이라는 것이다.

“죽어서 극락 가려고 애쓰지 마라. 지금 기쁘게 살면 그 자리가 천국이다.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지옥”이라는 스님의 철학은 명쾌하다.

과거의 아픈 기억도 불잡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여 있으면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현재를 즐긴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도움, 작은 위로는 곧 삶의 의미라고 믿는다.

스님은 “이 생애 와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야 죽을 때 웃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자체가 큰 행복이기에,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스님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국가나 기관의 제약 없이, 온전히 사람만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우는 것이다. 누구나 조건 없이 머물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다.

정인 스님은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한 일의 밀알이 되어 이웃과 함께 웃겠다”고 말했다. /0만호 기자